**그들의 시선으로 미술을 보다 – 미술, 세상에 홀리다.**

전략사업추진팀

최인규 주임

책 소개 의뢰를 받고, 어떤 책을 소개해야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가볍지 않으면서 부담되지 않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란 조건으로 제 책장을 훑어보았습니다.

물론, 실생활에 도움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둘러볼 수 있기를, 나아가 스스로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책이 미술, 세상에 홀리다 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고대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 세계 곳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비추어주는, 앉을 자리만 있다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책입니다.

**망딸리테 (Mentalité) – 우리가 아닌 저들의 시선**

‘망딸리테(mentalité)’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 하면 ‘멘탈리티(**mentality)**’ 입니다. 개념어로서의 ‘망딸리테’가 의미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던 집단적인 심성이나 사고, 세계관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저들의 시선으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탄생되게 된 개념어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망딸리테’에의 천착을 통한 미술의 이해를 깊게 추구해서 미술사와 미술 일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탄생된 책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이 만든 예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 매우 훌륭하고 재미있는 저술이 되었습니다.

가끔 예술에는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예술은 그른 창작이라 주장하는 초딩스런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시대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그것들이 엉터리 주장임을 보여줍니다.

예술은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술의 범주, 그리고 예술이란 단어로서 포괄하는 표현수단의 범주조차 명료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목적을 가진다는 사고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개별의 예술작품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만이 이를 작품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적을 가지는 것은 잘 봐줘도 예술이란 추상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창작하는 개인인 것이지요. 책은 그런 예술작품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 해 줍니다. 가령 고대 예술의 걸작들은 대부분 인간이 아닌 온전히 신을 위해 헌납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홀렸던' 겁니다. 인간이 그들 작품을 빤히 바라본다는 것은 벼락맞을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는 '올바른 창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에 창작자에 의해 부여된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제 예술감상의 주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신을 위한 작품들이 인간의 시선아래 놓입니다. 만든 이들이 본다면 치를 떨며 분노할 정도입니다. 신성모독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들 작품에 대한 감상은 틀렸고, 우리의 그것들에 대한 감상을 모두 철회해야 할까요? 혹은, 그것들을 '예술'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술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초월하는(그래서 사실상 가지지 않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창작자에게조차 불투명합니다. 신을 위해 만들었더니 찌질한 인간들이 좋다고 감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그릇되었다고' 분노하며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예술이 목적이나 규범에 구속되어 경계를 초월하지(가로지르지)못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게 되겠지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책은 미술이 세상에 어떻게 가로 지르는지(홀리는지) 설명하면서, 자아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